



미 증시, 매파적인 파월 발언에도 불구하고 급등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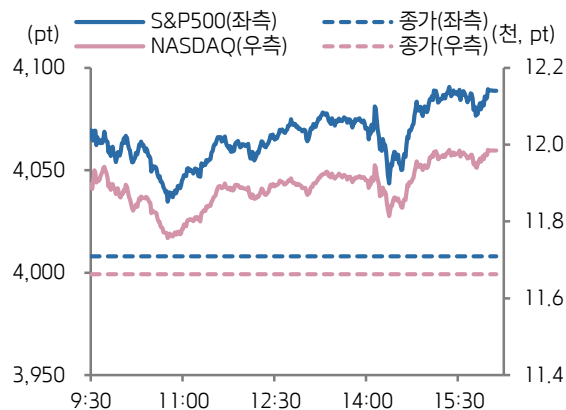
17 일 (화) 미국 증시는 장중 매파적인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소매판매 지표, IT 에 대한 집중 저가매수세에 힘입어 급등. S&P500 지수는 1.5% 상승 출발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 오전에 발표된 미국 4 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9% 상승(예상 +0.9%, 전월 +1.4%)하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며 경기에 대한 우려감 완화. 장중 파월 의장은 연준은 물가가 완화될 때까지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등 매파적인 발언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기도 했으나 시장은 이를 소화하면서 상승 추세 지속. 추가적으로 중국 상해에서 3 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없었다는 소식과 더불어 금주 홍콩이 방역 조치 완화, 일본도 소규모 단체 여행객들의 입국을 곧 허용할 것이라는 소식 등 리오프닝 기대감 확대(다우 +1.34%, S&P500 +2.02%, 나스닥 +2.76%, 러셀 2000 +3.19%)

파월은 이날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통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가파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는 데에 머뭇거리지 않겠다고 발언. 추가적으로 "우리(연준)는 물가 안정을 이뤄낼 것이다", "누구도 우리의 그러한 의지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등 긴축에 대한 연준의 강한 의지를 표명.

업종별로 필수소비재(-1.2%)를 제외한 모든 업종 1%대 상승 마감. 그중 상승 폭이 가장 컸던 업종은 IT(+2.9%), 소재(+2.9%), 금융(+2.7%). IT 는 애플(+2.5%), 반도체(필라. 반도체 지수 +5.0) 급등 영향으로 3% 가까이 급등. 이날 리오프닝 기대감 확대, 보잉 화재에 힘입어 다우 운송 지수는 3.2% 급등, 다우 항공 지수는 6.2%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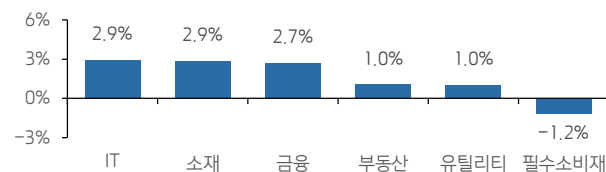
종목별로 개장 전 실적을 발표한 월마트(-11.4%)는 실적 및 가이드스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 급락한 반면, 홈디포(+1.7%)는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로 주가 상승. 유나이티드 에어라인(+7.9%)는 2 분기 매출 가이드스를 상향하면서 급등, 보잉(+6.5%)도 FAA 가 유나이티드의 777 모델 52 대 비행을 승인했다는 소식에 급등. 씨티그룹(+7.6%)은 워런 버핏이 1 분기에 지분을 29.5 억 달러 규모를 늘렸다는 소식에 급등, AMD(+8.7%)는 파이프 샌들러의 투자의견 업그레이드 영향으로 급등.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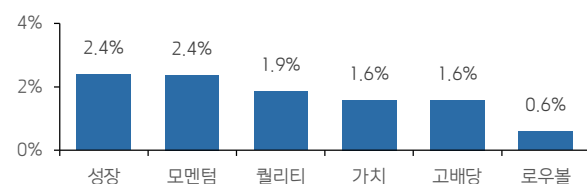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088.85	+2.02%	USD/KRW	1,274.90	-0.72%
NASDAQ	11,984.52	+2.76%	달러 지수	103.30	-0.85%
다우	32,654.59	+1.34%	EUR/USD	1.06	+0.01%
VIX	26.10	-4.99%	USD/CNH	6.75	+0.06%
러셀 2000	1,840.30	+3.19%	USD/JPY	129.38	+0%
필라. 반도체	3,066.50	+5.02%	채권시장		
다우 운송	14,787.91	+3.16%	국고채 3년	3.025	-1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280	+1.3bp
Eurostoxx50	3,741.51	+1.52%	미국 국채 2년	2.700	+13.1bp
MSCI 전세계 지수	640.43	+2%	미국 국채 10년	2.986	+10.4bp
MSCI DM 지수	2,693.95	-0.27%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007.50	+0.3%	WTI	112.4	-1.58%
MSCI 한국 ETF	66.44	+2.63%	금	1818.9	+0.2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2.63%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2.45%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68%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67.0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원/달러 환율 급등세 진정이 국내 외국인 수급에 미치는 영향
2.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급등(+5.0%)에 따른 국내 반도체주들의 투심 호전 가능성
3. 장중 중국 증시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전반적인 주가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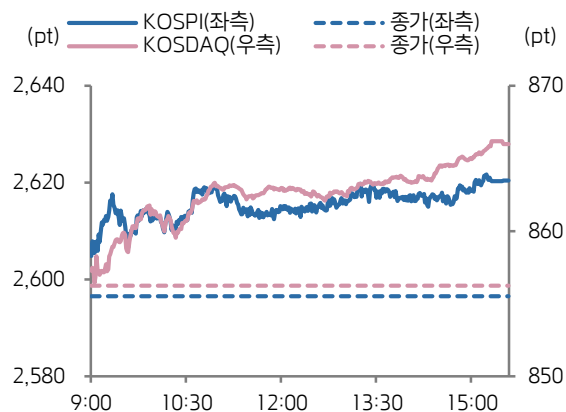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임금, 식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실적 쇼크를 기록한 월마트(-11.3%)의 주가 폭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인플레이션 레벨 다운 지연, 중국 봉쇄정책, 경기 둔화 우려 등 연초 이후의 기존 매크로 불안 요소들이 실물 경제 내에 잔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 또한 17 일 파월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뒤늦은 정책 대응을 시인한 가운데, 미국 고용, 성장의 훼손을 감수하더라도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점도 부담 요인.

하지만 시장참여자들은 이미 주가 조정을 상당부분 받아왔던 만큼 악재성 재료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상기 파월의장 발언도 지난 5 월 이후 그가 강조했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바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시장은 이를 장중 상수 취급 했던 것으로 판단. 한동안 75bp 인상을 주장하며 매파의 선봉장에 섰던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6 월 50bp 인상을 찬성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점도 일각에서 우려했던 자이언스 스탭 인상 불안을 완화시켜준 모습. 더 나아가, 미국의 4 월 소매판매(0.9%MoM, 예상 0.9%)와 산업생산(1.1%MoM, 예상 0.4%)이 우려했던 것보다 개선된 수치를 보였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 이는 연말까지의 경기 모멘텀 자체가 둔화되는 것은 불가피 하겠지만, 경기 침체를 베이스 경로로 상정해 가격에 반영하기에는 시기상조임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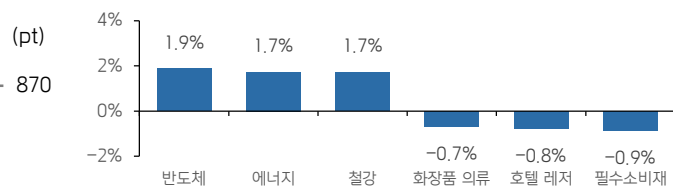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도 미국 실물 지표 개선 속 미 증시 급등 효과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한 때 1,280 원대까지 진입하며 과도한 오버슈팅 영역에 진입했던 원/달러 환율이 1,260 원대까지 내려왔다는 점도 투자심리 상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시켜줄 것으로 예상. 또한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5.7%), AMD(+8.7%) 등 반도체주들이 동반 급등세를 연출했다는 점도 국내 반도체주 및 전반적인 대형주들을 둘러싼 외국인들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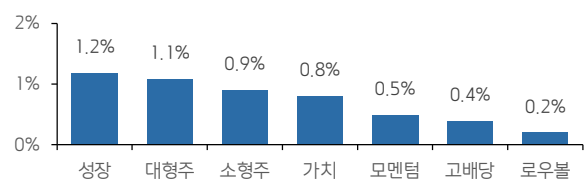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E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